

# “문화·사회사업 통해 지역과 소통”

## 조계종 포교원, 8월 11일 지역 공동체 워크숍 개최

지역 공동체로서 사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8월 11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마음선원과 정토회의 사례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마음선원 사례 발표는 고명석 포교원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과 도연화 한마음문화원 담당자가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한마음선원의 공동체 정신은 대행 스님의 오공(五共)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오공 정신은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 △공식(共食)을 말하며, 나와 가장 이웃 사회 우주는 한 마음으로 이뤄진 연기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은 오공 정신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지구 공생관을 진행하고 지구 환경 살리기 운동을 진행했다. 한마음선원의 봉사활동이나 지역민을 위한 문화 활동은 이 같은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음선원의 공동체 정신은 ‘나 자신이 공동체’임을 알고 나로부터 전체를

발견하는 공부를 강조한다”면서 “나 자신에게 공동체 역량이 키워졌을 때 아상을 넘어 자기 치유 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대사회적 공동체 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의 지역 공동체 포교 사업은 크게 환경운동과 지역 문화운동으로 나뉘질 수 있다.

### 한마음선원·정토회 사례 발표

### 불교 기반한 사회 운동 다양

### 문화회관 통한 강좌 운영도

### 9~10월 공동 포럼 개최 예정

제주 지원으로부터 시작된 EM 환경운동은 현재 자체적으로 EM 황토비누, 쪽비누, 한방비누, 주방비누, 세탁비누를 꾸준히 생산·보급할 정도로 발전했다. 또한 EM 발효액, 원액, 발효기 등은 전국 사찰과 선방, 강원 등에 보급되기도 했다.

“생활을 떠나서 종교는 없다”고 강조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행된 한마음선원 문화강좌는 지역민들이 불교를 접하



조계종 포교원은 8월 11일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마음선원과 정토회의 사례 보고와 토의가 이뤄졌다.

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강좌 참여자 중 48%가 지역민이고 이중에는 이웃종교 신도도 55%에 달한다.

강좌도 지역 특성과 현대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개발돼 있다. 현재 한마음선원 문화 강좌는 생활악기, 선법가, 다도, 태극권, 손뜨개 인형 만들기, 영어회화 등 30개에 달한다. 또한 지역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교실도 운영된다.

한마음선원 문화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도연화 씨는 “한마음선원이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선원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자연스러운 포교 효과도 가져왔다”면서 “강사 채용을 통한 잠재된 불교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례 발표한 정토회의 우수 스님은 수행을 기초로 한 불교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 세계화 사업을 소개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 공동체 포교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사례 발표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10월 경 공동 포럼을 계획 중이다.

고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 포교에 대한 유형이 다양하지만 아직 체계적인 분류가 안돼 있다”면서 “지역 공동체로서 사찰의 역할이나 지역과의 결합 방법 등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라”

불교 등 3대 종교, “거룩한 죽음 앞엔 차별 없다” 호소

“순직 인정 기준은 ‘그 죽음이 거룩했는가, 희생이었는데’로 처리돼야지 고용 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故김조원·이지혜 선생님은 정규직과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어느덧 5백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해 3대 종교가 힘을 모았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음, 이하 노동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대 종교 단체는 8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위 도철 스님, 효록 스님을 비롯해 박승렬 목사, 정수용 신부, 김조원·이지혜 선생님 유가족

대표 등 참석했다.

3대 종교는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순 없다. 하루 빨리 두 분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돼 유가족과 선생님들이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아픔이 극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3대 종교는 “두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참된 인솔자였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룩한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법조인들도 기간제 교사 역시 교원과 공무원으로서 지위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설사 법규정이 애매하더라도 새로운 법을 제정해 순직을 인정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3대종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촉구를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박익를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대 종교 단체는 8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위한 종교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 “울산 가천리 사지 원형 보존해야”

조계종 8월 11일 기자회견  
고속도로 공사구간서 발견  
공사 강행... 보전 정비 필요

조계종이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천리사지 유적의 보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 선로 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들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및 정밀발굴조사와 보전정비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6공구에 위치한 가천리사지는 울산지역 최대 폐사지(1만 4000㎡)로 양산 통도사와 비슷한 규모의

가람규모를 지니고 있다. 2013년부터 울산문화재연구원 등이 도로공사 용역을 맡아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도 공동발굴이 종료되는 등 보존평가에서 기준점을 훌쩍 넘은 94점을 기록했다.

혜일 스님은 “가천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유물이 확인됐다.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석탑지 등의 사찰 주요시설과 부속 시설이 확인될 만큼 중요한 절터로 구체적인 사료는 없지만 구전으로는 통도사에 버금가는 사찰로 전해온다”고 말했다.

혜일 스님은 “보존평가에서도 함께 발견된 불상사지의 기준점 88점에 비해 훨씬 중요성이 높은 94점을 기록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모든 조치를 동원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산지관광특구제, 설악산 망친다”

법승 스님, 10일 기자회견... “케이블카 등 난개발”

설악산 등 무분별 개발 우려  
생태계 고려 않는 ‘졸속 행정’  
“보전 목표 세우고 개발해야”  
농성장 등 반대 운동 진행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 제도는 ‘졸속 행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및 산지에 대한 무분별 개발을 중단하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승, 이하 불교사회연구소)는 8월 10일 ‘설악산 등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승 스님은 이날 자리서 정부의 설악산 개발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불교계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요청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승 스님은 “이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법률 자연공원

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을 기속하고 합법성을 가장해 한반도 자연 생태계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까지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가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대청봉 일대 황폐화와 오염이 자명하다”며 “산 정상부 숙박·휴게시설을 위한 도로 건설, 전력수송 수단 설치 및 온갖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은 산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승 스님은 산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립공원만큼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림생태계 난개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다. 스님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및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집단 서식지일 뿐 아니라 국내서 매우 희귀한 고산 식생대를 보이는 곳”

이라며 “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가치를 이해한 후 미래세대 또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승 스님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전통신사지 개발로 인한 불교 세속화도 우려했다. 법승 스님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은 정치권·지자체·대기업 주도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전통신사지 개발에 급발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교 세속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불교계가 누구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활동이 미비한 불교환경연대가 조직정비를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법승 스님은 “향후 정부 관계부처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단체 연대활동을 통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농성장을 설치하고 적극적 반대 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박익를 기자

#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공모

조계종, 28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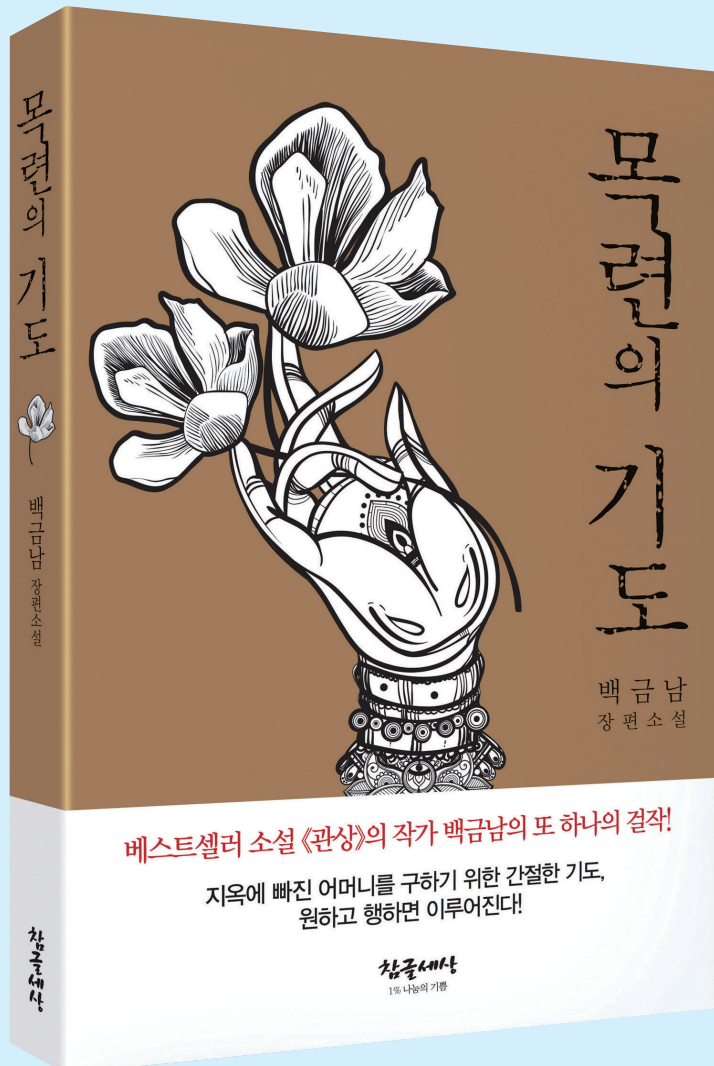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을 공모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일자 공고를 통해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을 오는 8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승남 20년 이상, 법계 대덕 또는 혜덕 이상의 조계종 승적 스님이어야 한다.

총괄부장은 자성과쇄신 결사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업무를 맡게 되며, 시민사회 활동 경험 있거나 공공사업부문 기획 능력을 갖춘 인사 등을 우대한다.

이 같은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총무원 공모는 ‘중단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지원 스님은 지난 7월 29일 열린 제5차 대중공사에서 교역직총무원 공모제 실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수행이력서 등의 서류는 종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0일부터 28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지가……. 그대를 인간지옥에 넣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오.”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305호 | kyooni1003@hanmail.net  
참글서상 1% 나눔의 기쁨